

'월드컵 스타' 조규성 이적에 변수 '동료' 황의조 매물 등장에 '촉각'

미국 미네소타, 두 선수에 동시에 관심 표명...대표팀 내 포지션 경쟁 이어 이적시장도 경쟁



월드컵 스타 조규성(25)의 이적에 대표팀 동료 황의조(31)가 변수로 등장했다. 포지션이 겹치는 황의조가 이적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규성의 이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규성은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헤더로 2골을 터뜨려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월드컵 이후 셀틱(스코틀랜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미국), 마인츠(독일) 등 3개 구단으로부터 공식 영입 제안을 받

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성 이적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황의조가 변수로 등장했다.

공교롭게도 조규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네소타가 황의조에게도 손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축구계 이적 전문가인 이탈리아의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13일(한국시간) "미국 메이저리그(MLS)의 미네소타가 올림피아코스와의 입대가 종료된 황의조의 원 소속팀인 노

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에 공식적으로 영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네소타는 조규성을 영입하기 위해 전북현대에 67억 원 규모의 이적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구단이다.

물론 두 선수의 상황은 다르다. 월드컵 활약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조규성과 달리 황의조는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황의조의 행선지가 미네소타로 정해질 경우 조규성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조규성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종 목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축구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로 제시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황의조는 지난해 8월 프랑스 리그 보르도를 떠나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했지만 그리스 리그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되면서 아직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규성이 다른 유럽 구단을 발판 삼아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할 경우 황의조보다 먼저 최고 리그를 누리게 된다.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는 조규성이 황의조와 주전 경쟁에서 승리하며 두 선수의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다. 대표팀 내 포지션 경쟁자인 조규성과 황의조가 이적 시장에서 본의 아니게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향후 두 선수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뉴시스



권순우가 14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대회 결승전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있다. (사진=호주테니스협회 제공)

권순우, 한국 최초 ATP 투어 2회 정상 올라...새 역사 썼다

한국 남자 테니스의 '희망' 권순우(당진시청·84위)가 생애 두 번째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정상에 섰다.

한국 선수가 ATP 투어에서 2번 이상 우승을 차지한 것은 권순우가 처음이다.

권순우는 14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대회 단식 결승에서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아구트(스페인·26위)를 2-1(6-4 3-6 7-6(7-4))로 꺾었다.

2021년 9월 아스타나오픈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권순우는 이로써 한국 선수 최초로 두 차례 ATP 투어 타이틀을 거머쥔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 테니스의 전설 이형택(47·은퇴)은 현역 시절 두 차례 ATP 투어 대회 결승에 올랐고, 우승까지 차지한 것은 한 번이었다. 이형택은 2001년 US 클레이코트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했고, 2003년 1월 아디다스 인터내셔널에서는 한국 선수 최초의 ATP 투어 대회 우승을 일궜다.

아스타나오픈에서 한국 선수로는 18년 8개월 만에 ATP 투어 단식에서 우승한 권순우는 이형택을 넘어 한국인 ATP 투어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아울러 권순우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오는 16일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 호주 오픈 기대도 부풀렸다.

우승 랭킹 포인트 250점을 챙긴 권순우는 다음주 발표될 세계랭킹에서 순위를 52위

결국 2세트를 내주고 3세트까지 간 권순우는 자신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 당하면서 게임 스코어 0-2로 끌려갔다.

그러나 권순우는 내리 세 게임을 따내며 흐름을 바꿨다.

권순우는 바우티스타 아구트의 서브게임을 듀스 상황에 잇달아 상대 범실을 이끌어 내면서 브레이크에 성공, 게임 스코어 2-2로 따라붙었다.

이러진 자신의 서브게임에서도 듀스에 돌입했던 권순우는 백핸드 다운더라이너로 어드밴티지를 잡은 후 상대 범실로 포인트를 따내 서브게임을 지켰다.

잘 싸우던 권순우는 두 게임을 연달아 헌납하며 게임 스코어 3-4로 역전당했다. 더블볼트를 저지하며 자신의 서브게임을 내준 것이 아쉬웠다.

권순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포인트도 내주지 않고 상대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면서 고스란히 되찾아냈다.

점전을 이어간 권순우와 바우티스타 아구트는 결국 타이브레이크에 돌입했다.

타이브레이크에서 2-3으로 끌려가던 바우티스타 아구트는 연달아 서브에이스를 터뜨리며 기세를 살렸다.

그러나 권순우도 자신의 서브 기회를 모두 포인트로 연결하면서 5-4로 리드를 잡았다.

날카로운 포핸드샷으로 상대 범실을 유도해 매치 포인트를 잡은 권순우는 이어진 랠

전남드래곤즈, '멀티플레이어' 중앙수비수 신일수·포워드 하남 영입

제도약을 준비하는 전남드래곤즈가 '멀티' 중앙수비수 신일수(28)와 포워드 하남(24)을 추가 영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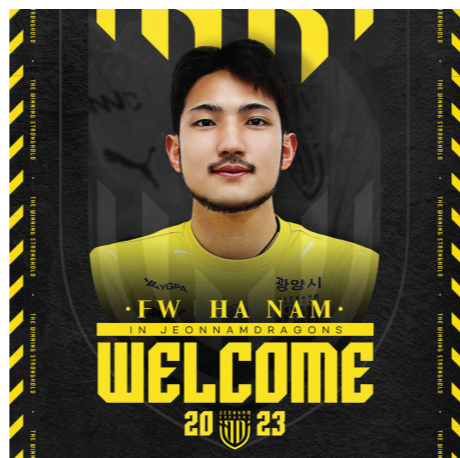
중원에서 거친 압박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신일수는 중앙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드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2015년 서울이랜드에 입단하여 프로데뷔를 하였고 2017년 포르투갈 2부리그 바르징 SC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프로통산 78경기 출전, 1득점, 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신일수는 전남의 거친 수비 축구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된다.

하남도 전방과 측면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공간을 활용한 움직임으로 유효슈팅을 만들어내는 공격수다. 하남은 2020년 안양에 입단하여 프로 무대에 데뷔하였고 2022년 경남에서 활약하며 프로통산 37경기 출전, 5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즉시 전력인 하남은 전남에 공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에 합류한 신일수는 "한국축구를 대



중앙수비수 신일수



포워드 하남

표하고 전통과 역사가 있는 전남에 입단하게 되어 영광이다. 팀에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으며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겠다"고 강한 포부를 전했다.

또한 하남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기장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방 공격수인 만큼 공격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싶고 팀에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한 신일수와 하남은 곧바로 동계훈련에 합류하여 전남 기존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팬투표 1위 허웅, 첫 올스타 3점슛 타이틀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 1위 허웅(KCC)이 처음으로 올스타전 3점슛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허웅은 15일 경기도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올스타전 3점슛 콘테스트 결승에서 김국찬(현대모비스)을 19-15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2년 연속 올스타 팬 투표 1위에 오른 허웅이 올스타전 3점슛 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시즌 올스타전에선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았다.

허웅은 앞서 리그 최고 슈터 전성현(캐롯)과 대결에서 웃었다. 전성현은 이번 시즌 경기당 3점슛 4.1개를 성공하며 20.3점을 기록 중인 득점 슈터다.

'사실상의 결승'이라 불린 준결승에서 허웅은 18점을 기록하며 16점에 그친 전성현을 제쳤다. 전성현은 예선에서 통과가 확정되자 3점슛 라인에서 1m가량 뒤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여유를 보이면서 2위로 통과했지만 외나무다리 승부에서 고비를 넘지 못했다.

KIA 선수단 55명 2월1일 스프링캠프 돌입

미국 애리조나서 2월24일까지 기술 훈련, 3월9일까지 일본서 실전 훈련



KIA 타이거즈가 2023시즌을 대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한다.

KIA는 오는 30일 미국 애리조나로 출국해 2월1일부터 24일까지 투싼(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스프링캠프를 운영한다. 2020년 플로리다 스프링캠프 이후 3년 만의 해외 전지훈련이다.

이번 스프링캠프에는 김종국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9명, 선수 36명 등 55명의 선수단

이 참가한다. 선수단은 투수 18명, 포수 4명, 내야수 8명, 외야수 6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신인 가운데에서는 투수 윤영철이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스프링캠프는 1차(미국)와 2차(일본)로 나뉘어 진행된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3일 훈련 1일 휴식' 체

제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한 뒤 2월 24일 일본으로 건너가 3월9일까지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본격적인 실전 체제에 돌입한다.

선수단은 2월 중순부터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2월19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을 시작으로 KBO 리그 팀들과 연습경기 등 총 8경기의 연습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뉴시스

세계 26위 바우티스타 아구트 꺾고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정상

ATP 투어 2번 이상 우승한 한국 선수는 권순우가 최초

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권순우의 개인 최고 세계랭킹이 52위다. 그는 2021년 11월 52위에 올랐었다.

권순우는 이번 대회 예선 2회전에서 토마시 마하치(체코·115위)에 저 본선 진출이 좌절되는 듯했지만, 본선 진출자 중 부상으로 기권한 선수가 나오면서 '러키 루저'로 본선 무대를 밟는 행운을 안았다.

은 좋게 본선에 오른 권순우는 16강전에서 세계 15위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스페인을 꺾는 등 상승세를 자랑하며 결승까지 올랐고, 결국 우승에 입맞춤했다.

ATP 투어 단식에서 러키 루저가 우승한 것은 권순우가 역대 10번째다.

이날 권순우가 꺾은 바우티스타 아구트는 올해 35세의 베테랑으로, 2019년 워싱턴에서 4강까지 오른 경험이 있는 선수다. 2019년에는 세계랭킹 9위까지 올랐으며 ATP 투어에서도 11번이나 우승했다.

권순우는 첫 게임이었던 바우티스타 아구트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면서 게임 스코어 2-0으로 앞서갔다.

강력한 포핸드를 앞세운 권순우는 브레이크를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채 1세트를 게임 스코어 6-4로 따냈다.

하지만 2세트에서 바우티스타 아구트가 권순우의 포핸드샷에 대처법을 찾으면서 살아났다.

권순우는 2세트에서 자신의 서브게임을 내줘 게임 스코어 0-2로 뒤졌다. 상대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던 권순우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3-5로 뒤진 상황에서는 라켓을 집어던지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리에서 바우티스타 아구트의 백핸드가 코트를 벗어남으로써 우승을 확정했다.

바우티스타 아구트가 챌린저를 요청했지만, 아웃 판정이 나왔고 그대로 승리는 권순우의 차이가 됐다.

우승을 확정된 뒤 권순우는 두 주먹을 벌린 취미 기쁨을 만끽한 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권순우는 언포스트 에러 22개로 16개인 바우티스타 아구트에 비해 많았지만, 서브에이스(11-5), 워너(42-23), 전체 포인트(103-96)에서는 모두 앞섰다.

경기 후 현지 취재진과 만난 권순우는 "기록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의 역사가 되면 좋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며 "오늘은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결승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민 여러분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긴 것 같아 감사하다. 다음주부터 호주오픈이 있는데 좋은 경기 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승으로 기세가 잔뜩 오른 권순우는 호주오픈에서 메이저대회 개인 최고 성적에 도전한다. 2021년 프랑스로에서 3회전까지 오른 것이 권순우의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이다. 호주오픈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본선 2회전에 올랐다.

그는 "대진운이 좋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메이저대회 본선에 나서는 선수면 경기력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질 수도, 이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젊다. 회복을 잘하면 어려운 경기라도 잘 치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